

간호대학생의 MBTI성격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영미*, 김선희²

¹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²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Effect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Emotional Intelligence, Sress Coping Strategie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Young-Mi Han^{1*}, Sun-Hee Kim²

¹Department of Nursing Gwang Yang Science University

²The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MBTI성격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C시에 소재하는 간호학과 학생 267명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r=.29$, $p<.001$)과 스트레스 대처방식($r=.27$, $p<.001$)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MBTI 성격유형의 심리기능유형($F=0.36$, $p=.781$)과 심리기질유형($F=0.43$, $p=.730$)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beta=.22$, $p<.001$), 입학동기 중 적성($\beta=.17$, $p=.024$), 전공만족도 중 만족($\beta=.24$, $p=.025$), 감성지능($\beta=.14$, $p=.028$)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15$, $p=.013$)으로 설명력은 총 17.5%($F=8.03$, $p<.001$)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의 각 하부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활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년($\beta=.12$, $p=.045$), 성적($\beta=.36$, $p<.001$), 전공만족도 중 만족($\beta=.21$, $p=.047$), 감성지능($\beta=.12$, $p=.055$),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12$, $p=.055$)으로 설명력(R^2)이 22.0%이었으며,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년($\beta=.14$, $p=.026$), 입학동기 중 적성($\beta=.18$, $p=.018$), 입학동기 중 취업($\beta=.18$, $p=.016$), 감성지능($\beta=.15$, $p=.023$)으로 설명력(R^2)은 10.0%이었다. 또한 개인심리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beta=.13$, $p=.016$), 입학동기 중 적성($\beta=.19$, $p=.010$), 감성지능($\beta=.30$,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18$, $p=.003$)으로 설명력(R^2)은 26.5%이었으며, 대인관계와 사회체험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년($\beta=.25$, $p<.001$ & $\beta=.25$, $p<.001$)으로 설명력(R^2)은 각각 8.4%, 6.1%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감성지능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함께 교과 외 활동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MBTI 성격유형의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질유형은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BTI personality typ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on their level of college adjustment. The subjects were 267 nursing students who are located in Chonnam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6th to March 31st, 2017. The level of college adjustment showed a close correlation with the emotional intelligence($r=.29$, $p<.001$) and stress coping strategies($r=.27$, $p<.001$), and the level of MBTI personality type was no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nursing student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was 17.5%($F=8.03$, $p<.00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management program to integrate the educational curriculum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in order to enhance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the type of psychological function and psychological temperament of the MBTI personality type were found not to have influenced the level of college adaptation of the nursing students and this should be confirmed in a large scale sample.

Keywords : Adjustment, Emotional intelligence, MBTI Personality type, Stress Coping Strategies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Han(Gwang Yang Science Univ.)

Tel: +82-61-760-1444 email: ymhan2012@naver.com

Received July 7, 2017

Revised July 27, 2017

Accepted August 17, 2017

Published August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 시기는 성인이 된 후 사회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숙하게 감당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1]. 최근 심각한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본인의 적성과 선호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취업의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거나, 본인의 의견보다 부모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전공에 대해 확신이 없고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여, 대학생활 부적응을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며[2],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한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더구나 어렵게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한 간호사들은 임상현장에서 부적응을 겪게 되고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지속될 수 있다[4]. 대학생활적응은 예비간호사로서 성인초기의 발달과업 달성뿐 만 아니라, 미래의 능력있고 높은 임상 적응력을 갖춘 신규 간호사의 배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5].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성향이나 성격을 파악해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임상현장에서의 생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다[4]. MBTI(Myers-Briggs Types Indicator)는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근거로 연구 개발한 인간이해를 위한 성격검사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유형상의 차이를 미리 예견하여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6]. 그 중 심리기능 유형은 감각이나 직관의 선호성향과 감정이나 사고의 선호성향 조합에 따라 정신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기능 유형에서는 감각 또는 직관의 성호성향과 증후적 또는 판단적 선행이 선호하는 조합에 따라 성격유형을 파악한다[7]. 따라서 MBTI의 세부적인 성격유형을 파악하여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분석한다면 대학생활 지도와 상담,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 감성을 조절하며,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8].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보인 반면[9]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고 사회생활에서도 적응이 어렵다

[10]. 이처럼 간호대학생들은 대인관계가 많이 요구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감성지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하거나[11] 일부 신입생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속에서 자신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는 대응행동으로[12]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사건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도 있고, 정신건강문제에 직면한 개인의 취약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13].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어[14]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성장의 바탕으로 여기고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갖게 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15][16].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의 운영과 교과 외 활동을 통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심리기능유형, 심리기질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 방식,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전남권 소재 3년제 간호대학생 2, 3학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 크기 산출을 위해 효과크기(f^2)는 .02, 유의수준(α) .05, 검정력 .90, 예측변수는 11개로 설정하였으며, 계산 결과 총 178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09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40부를 제외한 총 26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강의실 게시판에 대상자의 조건, 자료수집의 절차, 연구참여의 이점과 위험요인 및 연구목적 등을 게시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중도거부 가능, 개인정보의 보호, 설문소요시간 등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MBTI 성격유형검사와 설문지 작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MBTI 성격 유형검사는 공인된 기관의 MBTI 전문가가 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조사되었으며 조사시간은 약 90여분 소요되었다. 일반적 특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문은 연구자가 설명한 후 조사되었고, 약 30여분 소요되었다.

2.4 연구도구

2.4.1 MBTI 성격유형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MBTI를 Kim & Shim[17]이 한국판으로 완성한 것으로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할 때 선호하는 경향과 선호 경향들이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BTI G형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총 95문항이다. MBTI는 네 쌍의 지표로 16가지 MBTI 성격유형이며, 네 쌍의 지표는 외향형(Extraversion; 이하 E)과 내향형(Intraversion; 이하 I), 감각형(Sensing; 이하 S)과 직관형(iNtuition; N), 사고형(Thinking; 이하 T)과 감정형(Feeling; 이하 F) 그리고 판단형(Judgement; 이하 J)과 인식형(Perception; 이하 P)으로 구성된다. 또한 MBTI는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질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8][19], 심리기능유형은 ST형(Sensing Thinking), SF형(Sensing Feeling), NF형(iNtuition Feeling), NT형(iNtuition Thinking), 심리기질유형은 SJ형(Sensing Judgement), SP형(Sensing Perception), NF형(iNtuition Feeling), NT형(iiNtuition Thinking)으로 분류된다.

2.4.2 감성지능

Wong과 Law가 개발한 Wong과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를 Jeong[20]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문항의 점수는 모두 합한 점수로 최소점수는 16점, 최대점수는 112점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6$ 이었다.

2.4.3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도구를 Kim과 Lee[21]가 수정·변안 후 Park[22]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극적 대처방식에는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이며, 소극적 대처방식에는 정서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점수는 모두 합한 점수로 최소점수는 24점, 최대점수는 96점이다. Park[22]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75$ 이었다.

2.4.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eong과 Park[23]이 개발한 도구로 하위요인은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의 총 5개 영역의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점수는 모두 합한 점수로 최소점수는 19점, 최대 점수는 95점이다. Jeong과 Park[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1$ 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MBTI 성격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s,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계수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inear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89세로 여학생이 94.0%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2학년 56.9%, 3학년 43.1% 이었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7)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 or N	SD or %
Age (years)		23.89	5.45
Gender	Male	16	6.0
	Female	251	94.0
Grade	2	152	56.9
	3	115	43.1
Religion	Yes	83	31.1
	No	184	68.9
Living with parents	Yes	131	49.1
	No	136	50.9
School record	≥ 3.5	100	37.5
	< 3.5	167	62.5
Motivation for entering school	Job	117	43.8
	Aptitude	87	32.6
	Recommendation by nearby people	63	23.6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16	6.0
	Usually	59	22.1
	Satisfied	162	71.9

거주 형태는 부모님과 거주(49.1%)와 그 외(50.9%)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업성적은 3.5 이상이 37.5%이었고 3.5 미만이 62.5%를 차지하였다. 입학 동기는 취업을 위해 43.8%, 적성이 맞아서 32.6%, 부모나 타인의 권유 23.6% 순이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71.9%, 보통 22.1%, 불만족 6.0%로 나타났다 (Table 1).

3.2 MBTI 성격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대학생활적응 정도

MBTI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ESFP형과 ISTJ형이 12%로 가장 많았고, ENPI형과 ISFP형이 10.5%로 나타났다. INFJ형과 ENTJ형이 각각 0.7%, 0.4%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서 SF형이 39.0%로, 심리기능유형에서 SJ형이 34.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MBTI Personality Type (N=267)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BTI type	ESFP	32	12.0
	ISTJ	32	12.0
	ENFP	28	10.5
	ISFP	28	10.5
	ISFJ	26	9.7
	INFP	21	7.9
	ESFJ	18	6.7
	ESTJ	17	6.4
	ESTP	15	5.6
	ISTP	12	4.5
	ENFJ	10	3.7
	INTP	10	3.7
	ENTP	8	3.0
	INTJ	7	2.6
INFJ	2	0.7	
ENTJ	1	0.4	
Psychological function	SF	104	39.0
	ST	76	28.5
	NF	61	22.8
	NT	26	9.7
Psychological temperament	SJ	93	34.8
	SP	87	32.6
	NF	61	22.8
	NT	26	9.7

또한 감성지능은 총점 112점에서 평균 75.68± 11.01점이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감성이해 20.64±3.37점, 타인감성이해 20.10±3.43점, 감성활용 18.02±3.90점, 감성조절 16.91±4.18점 순이었다. 스

트레스 대처방식은 총점 96점에서 평균 60.08±7.86점이며, 적극적 대처 29.96±4.87점, 소극적 대처 30.10±4.43점이었다. 적극적 대처의 하위영역은 사회적지지 추구대처 15.41±2.97점, 문제중심 대처 14.55±3.15점이며, 소극적 대처의 하위영역은 소망사고대처 17.37±2.85점, 감정완화 대처 12.73±2.70점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은 총점 95점에서 평균 58.17±12.56점이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학업활동 14.93±2.75점, 개인심리 14.34±3.42점, 진로준비 10.61±3.24점, 대인관계 10.49±3.53점, 사회체험 7.80±2.88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Research Variables (N=267)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	SD
Emotional intelligence		75.68	11.01
	Self emotion appraisal	20.64	3.37
	Other's emotion appraisal	20.10	3.43
	Use of emotion	18.02	3.90
	Regulation of emotion	16.92	4.18
Stress coping strategies		60.08	7.86
	Active coping	29.96	4.87
	Seeking social support	15.41	2.97
	Problem centered	14.55	3.15
	Passive coping	30.10	4.43
	Wishful thinking	17.37	2.85
Adjustment to college life		12.73	2.70
		58.17	12.56
	Academic Activities	14.93	2.75
	Career preparation	10.61	3.24
	Personal psychology	14.34	3.42
	Interpersonal relationship	10.49	3.53
	Social experience	7.80	2.88

3.3 일반적 특성과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연령 ($r = .15, p = .014$), 학년($t = -3.97, p < .001$), 입학동기 ($F = 6.44, p = .002$), 전공만족도($F = 3.42, p = .03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업활동($r = .12, p = .045$), 진로준비($r = .12, p = .050$), 개인심리($r = .25, p < .0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년은 학업활동($t = -2.53, p = .012$), 진로준비($t = -2.76, p = .006$), 개인심리($t = -1.99, p = .048$), 대인관계($t = -4.52,$

$p < .001$), 사회체험($t = -4.13,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입학 동기는 사후분석 결과 적응이 성적보다 학업활동($F = 3.45, p = .033$), 진로준비($F = 5.03, p = .007$), 개인심리($F = 11.26,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공만족도는 사후분석 결과 전공 만족이 불만족보다 학업활동($F = 4.38, p = .013$), 개인심리($F = 3.67, p = .02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형태와 성적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거주형태의 경우는 그 하위영역인 개인심리($F = 1.98, p = .04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적의 경우는 학업활동($t = 7.31,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한편 MBTI 성격유형의 심리기능유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단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성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실시하였다. 이 중 학년, 입학동기, 전공만족도, 거주형태 및 학업성적은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Table 6).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든 조건을형($F = 0.36, p = .781$)과 심리기질유형($F = 0.43, p = .730$)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3.4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r = .29, p < .001$)과 스트레스 대처방식($r = .27, p < .0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에서 감성지능은 학업활동($r = .23, p < .001$), 진로준비($r = .24, p < .001$), 개인심리($r = .43, p < .001$), 대인관계($r = .16, p = .010$)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학업활동($r = .24, p < .001$), 진로준비($r = .21, p < .001$), 개인심리($r = .35, p < .001$), 대인관계($r = .17, p = .007$)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3.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과 그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학년, 입학동기, 전공만족도, 거주형태, 학업성적 및 주요 연 구변수인 감성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독립 충족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54 ~ .96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4 ~ 1.86으로

Table 4.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BTI Personality Type

(N=267)

Characteristics	Category	Adjustment to college life r or t or F (p)	Academic Activities r or t or F (p)	Career preparation r or t or F (p)	Personal psychology r or t or F (p)	Interpersonal relationship r or t or F (p)	Social experience r or t or F (p)
Age		.15 (.014)	.12 (.045)	.12 (.050)	.25 (<.001)	.06 (.333)	.03 (.682)
Gender	Male	- 0.42 (.681)	- 1.26 (.224)	- 1.12 (.279)	0.81 (.427)	- 0.40 (.695)	0.60 (.559)
	Female						
Grade	2	- 3.97 (<.001)	- 2.53 (.012)	- 2.76 (.006)	- 1.99 (.048)	- 4.52 (<.001)	- 4.13 (<.001)
	3						
Religion	Yes	0.99 (.321)	- 0.22 (.830)	0.65 (.515)	1.78 (.076)	0.41 (.682)	0.95 (.342)
	No						
Living with parents	Yes	0.10 (.922)	- 0.64 (.526)	- 0.11 (.910)	1.98 (.049)	0.03 (.979)	- 1.21 (.226)
	No						
School record	≥ 3.5	1.41 (.161)	7.31 (<.001)	0.04 (.970)	1.27 (.205)	- 0.69 (.490)	- 0.88 (.383)
	< 3.5						
Motivation for entering school	Job ^a	6.44 (.002)	3.45 (.033)	5.03 (.007)	11.26 (<.001)	2.81 (.062)	0.92 (.402)
	Aptitude ^b						
	Recommendation by nearby people ^c	(b>c)	(b>c)	(b>c)	(b>a, c)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a	3.42 (.034)	4.38 (.013)	2.70 (.069)	3.67 (.027)	1.28 (.279)	1.01 (.364)
	Usually ^b						
	Satisfied ^c	(c>a)	(c>a)		(c>a)		
Psychological function	SF	0.36 (.781)	0.77 (.514)	0.54 (.656)	0.30 (.826)	0.39 (.762)	0.82 (.482)
	ST						
	NF						
	NT						
Psychological temperament	SJ	0.43 (.730)	0.60 (.615)	0.44 (.726)	0.87 (.457)	1.59 (.192)	1.07 (.363)
	SP						
	NF						
	NT						

기준 값인 10보다 작아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이 충족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검정 값은 1.99로 기준 값인 2에 가까워 각 독립변수 간에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잔차 분석 결과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산점도도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년($\beta=.22, p<.001$), 입학동기 중 적성($\beta=.17, p=.024$), 전공만족도 중 만족($\beta=.24, p=.025$), 감

성지능($\beta=.14, p=.028$)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15, p=.013$)으로 총 설명력(R^2)은 17.5% 이었다.

한편 대학생활적응의 각 하부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활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년($\beta=.12, p=.045$), 성적($\beta=.36, p<.001$), 전공만족도 중 만족($\beta=.21, p=.047$), 감성지능($\beta=.12, p=.055$),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12, p=.055$)으로 설명력 (R^2)이 22.0% 이었으며,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년($\beta=.14, p=.026$), 입학동기 중 적성($\beta=.18, p=.018$), 입학동기 중 취업($\beta=.18, p=.016$), 감성지능($\beta=.1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N=267)

Characteristics	Adjustment to college life r (p)	Academic Activities r (p)	Career preparation r (p)	Personal psychology r (p)	Interpersonal relationship r (p)	Social experience r (p)
Emotional intelligence	.29 (<.001)	.23 (<.001)	.24 (<.001)	.43 (<.001)	.16 (.010)	.07 (.277)
Stress coping strategies	.27 (<.001)	.24 (<.001)	.21 (<.001)	.35 (<.001)	.17 (.007)	.12 (.051)

Table 6.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N=267)

Category	Variables	β	t	p	R ²	Adj R ²	F (p)
Adjustment to college life	Constant		2.18	.030	.199	.175	8.03 (p<.001)
	Grade* (3=1)	.22	3.66	<.001			
	Motivation* (Aptitude=1)	.17	2.28	.024			
	Motivation* (Job=1)	.12	1.72	.087			
	Major satisfaction* (Usually=1)	.17	1.60	.11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1)	.24	2.25	.025			
	Age	.08	1.36	.175			
	Emotional intelligence	.14	2.21	.028			
Academic Activities	Constant		5.21	<.001	.246	.220	9.34 (p<.001)
	Grade* (3=1)	.12	2.01	.045			
	School record*	.36	6.29	<.001			
	Motivation* (Aptitude=1)	.13	1.71	.088			
	Motivation* (Job=1)	.07	0.99	.324			
	Major satisfaction* (Usually=1)	.15	1.42	.15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1)	.21	1.99	.047			
	Age	-.02	-0.37	.715			
Career preparation	Constant		1.32	.187	.120	.100	5.93 (p<.001)
	Grade* (3=1)	.14	2.24	.026			
	Motivation* (Aptitude=1)	.18	2.38	.018			
	Motivation* (Job=1)	.18	2.42	.016			
	Age	.06	0.93	.354			
	Emotional intelligence	.15	2.29	.023			
Personal psychology	Constant		-0.77	.440	.290	.265	11.65 (p<.001)
	Grade* (3=1)	.06	1.02	.308			
	Living with parents* (Yes=1)	-.02	-0.43	.667			
	Motivation* (Aptitude=1)	.19	2.58	.010			
	Motivation* (Job=1)	.11	1.63	.104			
	Major satisfaction* (Usually=1)	.14	1.38	.16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1)	.19	1.90	.059			
	Age	.13	2.43	.016			
	Emotional intelligence	.30	4.90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stant		2.95	.003	.094	.084	9.12 (p<.001)
	Grade* (3=1)	.25	4.06	<.001			
	Emotional intelligence	.06	0.88	.377			
	Stress coping strategies	.11	1.69	.093			
Social experience	Constant		31.70	<.001	.064	.061	18.23 (p<.001)
	Grade* (3=1)	.25	4.27	<.001			

Adj R²: Adjusted R square * : Dummy coded

p=.023)으로 설명력(R²)은 10.0%이었다. 또한 개인심리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beta=.13, p=.016$), 입학동기 중 적성($\beta=.19, p=.010$), 감성지능($\beta=.30,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18, p=.003$)으로 설명력(R²)은 26.5%이었으며, 대인관계와 사회체험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년($\beta=.25, p<.001$ & $\beta=.25, p<.001$)으로 설명력(R²)은 각각 8.4%, 6.1%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대처능력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생활 지도와 상담, 효과적인 교수 및 지도 전략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은 ESNP형과 ISTJ형이 동일하게 12%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유형

인 ISTJ형은 한국여자 대학생 2,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MBTI검사 결과[24]와 Lee[25], Nam[26], Lim[27]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ESFP형은 Jang과 Kim[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서 SF형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Chae[4]연구와 일치하였으나, Lim[27]연구에서는 ST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심리기능유형에서는 SJ형이 34.8%와 SP형이 32.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Lim[27], Chae[4]와 Lee[25]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능유형으로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Lee[25]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초등학교 대상[29]이나 청소년 대상[30], [31]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단순히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학교적응을 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BTI 성격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거의 확인할 수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개인의 고유한 장점을 인식할 수 있는 MBTI 자기 성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학교와 간호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자기를 사용한다면 학교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감성지능은 총점 112점 중 평균 75.68점이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총점 28점 중 자기감성이해 20.64점, 타인감성이해 20.10점, 감성활용 18.02점, 감성조절 16.92점 순이었다. 감성지능점수는 평균이상이며 이는 최대점수 7점에서 4.98점[32], 최대점수 5점에서 3.57점[33]과 3.65점[34]과 유사하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점수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 순으로 Shin[35], Paek[32]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인관계가 중요한 간호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기감성이해와 타인감성이해가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는 간호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Park[36]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대학생활적응에 16.2%의 설명력을 보였고, Jung & Chung[37]과 Choi[38]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감성지능은 대학생활적응(

.29)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하위영역인 개인심리(.43), 진로준비(.24), 학업활동(.23), 대인관계(.16)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Noh & Bae[39], Go[33], Song[40], R.Fernandez[42]연구에서 학업활동이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음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총점 96점 중 평균 60.08점이며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는 총점 48점 중 적극적 대처 29.96점, 소극적 대처 30.10점이었다. 적극적 대처의 하위영역은 사회적지지 추구대처 15.41점, 문제중심대처 14.55점이며, 소극적 대처의 하위영역은 소망사고대처 17.37점, 감정완화대처 12.73점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 결과는 Lee[25]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소망사고대처 점수가 가장 높고 감정완화대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Park[4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Won[43]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적극적 대처능력이 53%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F=44.28, p<.001$).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같은 적극적 대처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소극적 대처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때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44]. 따라서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긍정적인 대처에 해당하는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학생활적응(.27)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하위영역인 개인심리(.35), 학업활동(.24), 진로준비(.21), 대인관계(.17)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은 총점 95점 중 평균 58.17점이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총점 20점 중 학업활동 14.93점, 개인심리 14.34점, 진로준비 10.61점, 대인관계 10.49점이며 사회체험은 총점 15점 중 7.8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 Lee[45]의 대학생활적응점수 총점 9점의 평균 5.16점과 유사하였고, Kim[3]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에서 총점 5점에 개인심리 3.59점, 학업활동 3.34점, 진로준비 2.83점, 대인관계 2.60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입학동기가 적성인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을 잘하는 것은 Lee[25]연구와 일치하였고 이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타 대학을 졸업 후 간호학과에 지원한 경우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에 임하게 되는 경우로 사료되며,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입학연도 학생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거나 적성이 맞아서 온 경우가 높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Ahn & Lim[46]과 Won[43]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고 적성이 맞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이 확실하여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유용한 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영향을 주는 MBTI 성격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과 동시에 인성 및 자질개발,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개인의 흥미와 재능을 발전시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미래의 간호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또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감성지능을 증진시키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MBTI 성격유형의 심리기능 유형과 심리기능 유형은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Y.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Identity,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s thesis, Daejin University, Gyeonggi-do, 2015.
- [2] H. Y. Koo, H. S. Park,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6, no. 2, pp. 373-385, 2005.
- [3]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Korean Academic Social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4] M. O. Chae,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303-311,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4.303>
- [5] J. H. Choi, M. J. Park,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7,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7.339>
- [6] M. J. Go, "The Effect of MBTI Self Growth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3, no. 1, pp. 28-37, 2014.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1.28>
- [7] S. Y. Lim, "A Study on Child Care Teacher's MBTI Personality Types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Chungcheongnam-do 2012.
- [8] Chi-Sum. Wong, S. Kenneth,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9] P. N. Lopes, M. A. Brackett, J. B. Nezleck, A. Schutz, I. Sellin,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30, pp. 1018-1034, 2004.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4264762>
- [10] J. D. Mayer, D. R. Caruso,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vol. 27, no. 4, pp. 267-298, 2000. DOI: [https://doi.org/10.1016/S0160-2896\(99\)00016-1](https://doi.org/10.1016/S0160-2896(99)00016-1)
- [11] J. H. Yun,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eoul, 2016.
- [12] Billings, G Moos. Andrew, H. Rudolf,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6, no. 4,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6.4.877>
- [13] J. H. Ha, H. J. Yoo, I. H. Cho, B. Chin, D. Shin, & J.

- H Kim, "Psychiatric comorbidity assessed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screen positive for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vol. 7, no. 5, pp. 821-826, 2006.
DOI: <https://doi.org/10.4088/JCP.v67n0517>
- [14] J. K. Kim, "A Review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Journal Korean Academic Social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47-59,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47>
- [15] N. H. 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Health Locus of Control in Nursing College Students."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9, no. 2, pp. 177-185, 2013.
http://libproxy.jnu.ac.kr/90a6552/_Lib_Proxy_Url/www.riss.kr/link?id=A99903963
- [16] N. Y. Lee, "The Effects of Empathy and Life Stress on Stress of Coping Strategy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cheongnam-do, 2016.
- [17] J. T. Kim, H. S. Shim, "Characteristics of 16 personality types", Seoul; ASSESTA, 2007.
- [18] I. B. Myers, M. H. McCaulley, & R.t Most.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5.
- [19] D. Keirse, "Please understand me 2", Promote the us Nemesis Book Company, 1998.
- [20] H. W. Jeo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al's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2007.
- [21] J. H. Kim, J.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uctive factors of stress coping methods and depression", *Behavioral Science Research*, pp. 127-138, 1985.
- [22] J. Y.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type A & 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995.
- [23]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1, no. 2, pp. 69-92, 2009.
- [24] J. T. Kim, H. S. Shim, & S. B. Jae, "MBTI Development and Use",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1995.
- [25] Y. R. Lee, S. H. Kim, & M. S. Chu, "Stress, Stress Coping,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172>
- [26] S. H. Nam, "A Study on stress in practice and coping style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7.
- [27] J. Y. Lim, I. Y. Yoo, & S. N. Oh, (2001)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SAT score and GPA of Students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1, no. 5, pp. 835-845, 2001.
DOI: <https://doi.org/10.4040/jkan.2001.31.5.835>
- [28] H. J. Jang, M. Kim. "Temperament by MBTI Personality Types,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9, pp. 400-41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9.400>
- [29] J. H. Kim, "A Study on Difference in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of Upper-Class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6.
- [30] H. G. Yi,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Type by MMTIC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su National University, Jeollanam-do, 2003.
- [31] S. Y. Kim,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on MBTI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ajor in Child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999.
- [32] J. W. Paek, "Factors Influencing on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2013.
- [33] M. S. G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ntents*, vol. 15, no. 10, pp. 280-29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0.280>
- [34] G. S. Jeong,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Ego-resiliency and the Stress on Clinical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10, no. 10, pp. 165-183, 2013.
http://libproxy.jnu.ac.kr/90a6552/_Lib_Proxy_Url/www.riss.kr/link?id=S90020319
- [35]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636-5645,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36] H. T.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76-1583,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3.1576>
- [37] H. J. Jung, H. 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Academic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vol. 21, no. 3, pp. 188-196, 2012.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2.21.3.188>
- [38] J. H. Choi,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9.
- [39] S. R. Noh, S. A. Bae,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on College Adapt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2, pp. 343-362, 2014.

- [40] J. E. Song, H. J. Chea.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al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02-512,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02>
- [41] R. Fernandez, Y. Salamonson, R. Griffiths, "Emotional intelligence as a predictor of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year accelerated graduate entr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Ecology, 21(23-24), pp. 3485-3492. 2012. DOI: <https://doi.org/10.1111/j.1365-2702.2012.04199.x>
- [42]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1.17.3.267>
- [43] H. J. Won,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9, no. 1, 2015.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241444>
- [44] A. Wang, L. Chen, B. Zhao, & Y. Xu, "First-Year Students' Psychological and Behavior Adaptation to College: The Role of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Online Submission 3.5, pp. 51-57, 2006.
- [45]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2.267>
- [46] J. Y. Ahn, H. K. Lim, "College adjustment of femal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4, no. 1, pp. 233-239, 2005.

한 영 미(Young-Mi Han)

[정회원]



- 198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5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6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김 선 희(Sun-Hee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3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15년 7월 ~ 현재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실습조교

<관심분야>

기본간호학, 시뮬레이션 교육